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5차회의

일시:2011년 12월 12일 장소: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2011년 5차 회의가 1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일환 방송보도부장 겸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지면개선안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문·방송시대 연 광주일보 지역 목소리 높여달라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연말 쏟아지는 회고시리즈
본질·방향 함께 제시돼야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어번폴리 지적 시의적절
이슈화해 지원 이끌어주길

조미옥 (나주 봉황중 교사)

학교성취도평가 성적 편향적
교육의 다양성 알렸으면

조연술 (광주테크노파크 인력양성센터장)

FTA, 지역적 관점 부족
피해예상액·대안 취재를

경 훈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우울증 증상 극복법 상세
지친 현대인들에 큰 도움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위원장=그동안 도가니 사건을 시작으로 5·18 역사교과서 문제 등 많은 사안들이 있었다. 광주일보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자위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린다.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첫 독자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일보가 나아갈 방향성에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최근 광주일보가 동아일보와 함께 종편을 시작했다. 많은 독자들이 광주일보의 선택에 염려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왜 종편에 참여하게 됐는가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해달라.

지난 9월 광주일보에서 어번폴리 문제를 잘 지적한 칼럼을 봤다. 어번폴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수없이 접했다. 개인적으로는 광주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관리비 문제도 당면한 과제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열악한 광주시가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 어번폴리를 좀더 이슈화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으면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광주일보에서 가장 좋았던 보도는 5·18 역사교과서 문제였다. 민감한 사안인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잘 보도해줬다. 특히나 지역에서 5·18은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앞으로도 올바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 '신안 증도 쓰레기 모아오면 입장료 환불'기사도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로 관광지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가를 잘 지적해줬다.

▲조미옥 나주 봉황중학교 교사=12월1일 '젊은이들 생명경시 걱정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젊은이들의 생명경시 풍조는 가정, 사회 그리고 언론의 책임이 크다. 위 기사와 함께 이날 '광주·전남 수능 영예의 최고점자들'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가장 큰 물음은 과연 이 기사가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가였다. 또, 12월2일 '학교성취도 평가 전국 최고 완도 약산중 화제'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내용에는 중학생들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중학생들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것일 최선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면 학교나 학부모들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생들을 국영수중심의 수업에 내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성적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적 측면에서 경쟁위주의 보도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사들을 부탁한다.

가장 돋보였던 기사는 나주중학교 학생이 성적이 아닌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기사였다. 꼭 공부만이 최고가 아님을 보여주는 기사였다. 최근 우리 사회가 한 줄서기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한 줄서기보다 여러 줄서기,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보석 같은 기사였다.

▲조연술 광주테크노파크 인력양성센터장=한미FTA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광주일보도 많은 기사를 다뤘다. 하지만, 실제 독자들이 한미FTA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지역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정확한 손실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농촌사회는 어떤 피해가 있고, 막대한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상황은 어떤지를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2월2일 '광주·전남 국고 5천억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지난 3년간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인해 민주당 텃밭인 광주시와 전남의 현안사업비 5천억원이 증발했다는 기사였다. 하지만, 단독처리를 강행하는 여당도 나쁘지만 과연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 지역 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궁금하다. 무조건 한나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점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11월15일 '광주 6곳 매출 2조원대 … 6년만에 급성장'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광통신·LED 등 광주의 광통신 첨단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하지만, 이면에 대기업 성장으로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대기업 성장도 좋겠지만 지역의 풀뿌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는 기사가 바람직하겠다.

▲경훈 (사)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11월24일 한미FTA 농축산업 직격탄 '농도 전남 최대 피해 대책 급하다' 기사와 12월5일 박준영지사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남도를 위한 FTA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지역의 문제점들을 잘 살피고 대안을 제시한 좋은 기사였다. 한미FTA 찬반 논쟁은 많은 언론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광주일보는 도시민들과 농민들이 힘을 모아 한미FTA를 극복해 가는 구체적인 노력과 대안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

11월28일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한 기사를 보면 우울증에 대한 증상과 극복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기사였던 것 같다. 특히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제목의 타이틀은 우울증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다가는 얼마나 심각해 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제목이었다.

12월2일 2008~2010년 예산안이 모두 날치기로 통과돼 광주·전남 국고 5000억원이 증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지난 3년간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지역의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신속히 보도해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김병인 서영대학 사회복지행정학부 교수=지난 10월19일 '지자체 보행로·자전거도로 마구잡이 조성…길 열풍에 혈세로 단체장 치적 쌓기' 보도가 나왔다. 최근 둘레길 열풍으로 각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길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만 훼손되고 유지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된다. 적절한 기사였다.

10월24일 '4년제 사립대 절반 장학금 7천억 쏜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지역의 대표적인 사립대인 조선대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선대는 왜 계획이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반값 등록금 문제도 광주일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지난 11월 머리채 잡힌 교권 기사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광주일보는 '여중생과 여교사의 몸싸움' 정도로 제목을 뽑아 학생과 교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교권침해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한 문제다. 광주일보가 나서서 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김병인 (서영대 사회복지행정학부 교수)

교사·여중생 몸싸움 충격
교권침해 지속적 관심을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

전남 전지훈련지로 으뜸
음식·인프라 등 더 알려야

광주일보의 '영산강 물 맑아졌다' 기사를 접하면서 당혹스러웠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단 한차례 검사로 맑아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동안 영산강을 포함해 4대강 사업은 근본적인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천들이었다. 지금도 많은 영산강 인근 주민들이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게 광주일보가 나서달라.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지난 8월19일 대구육상대회와 관련해 동유럽 5개국 훈련캠프 보도 이후 12월2일 '전남으로 동계훈련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전남도에서 올해 1500팀 50만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나선다는 기사가 나왔다. 또한, 같은 지면에 2011년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에서 해남군이 스포츠마케팅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운동선수들의 동·하계 전지훈련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전지훈련으로 인한 그 효과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기사였다고 본다. 향후 다른 지역의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기사화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철갑=독자위원들이 두 달 동안 발행한 지면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줬다. 다들 공감되는 내용들이었다. 광주일보가 12월12일자부터 '회고 2011' 시리즈를 시작했다. 시리즈를 하면서 사건의 본질만을 다루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 광주시 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 최근 기아차에 대한 홍보성 기사들이 너무 많다. 과연 기아차가 많이 팔리면서 광주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이익이 무엇인지 기사화 해주길 바란다.

/정리=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